



9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끝난 US 여자오픈 챔피언십의 우승자 최나연(오른쪽)이 14년 전 같은 코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대선배 박세리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4년 전 박세리 '맨발 투혼' 바로 그곳에서 '세리키즈' 최나연 꿈 이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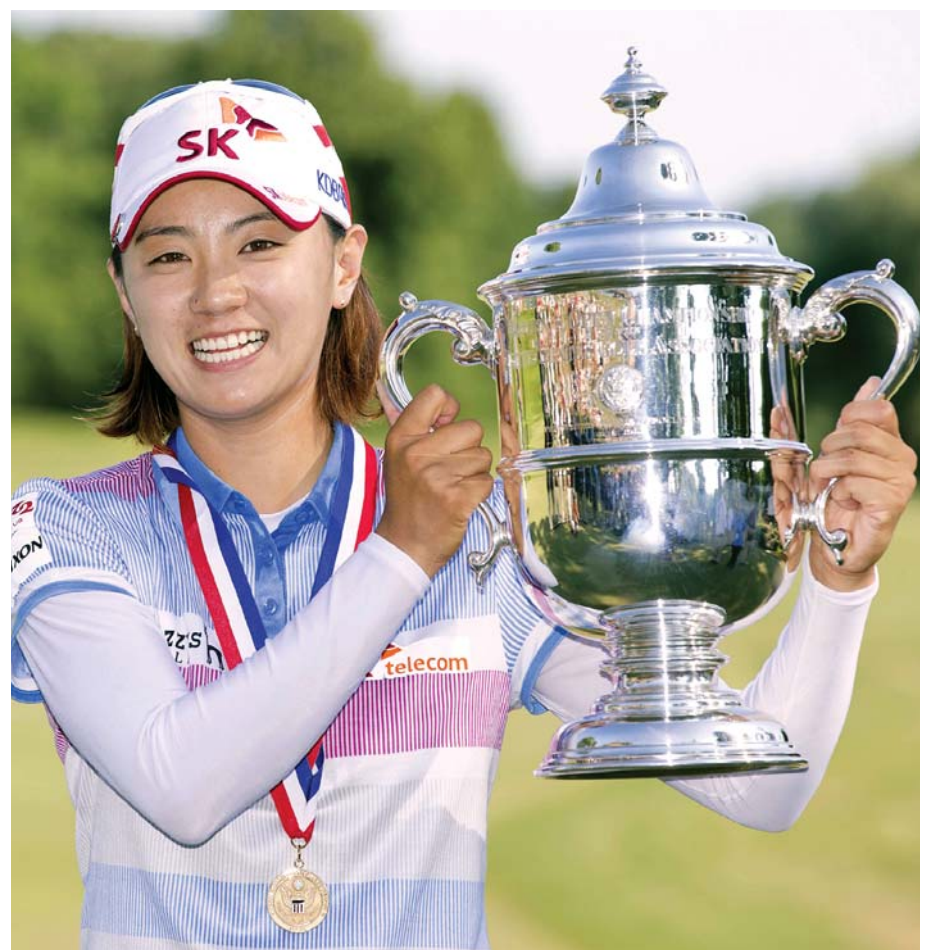
US여자오픈 우승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최나연(25·SK텔레콤)이 14년 전 박세리(35·KDB금융그룹)가 썼던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최나연은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블랙울프린 골프장(파72·6954야드)에서 열린 제67회 US여자오픈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만회하고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의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최나연은 챔피언십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친 양희영(23·KB금융그룹·3언더파

285타)를 4타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8만5000달러(약 6억6500만원)를 품에 안았다. 지난해 유소연(21·한화)에 이어 최나연이 2년 연속 우승하면서 역대 US여자오픈 한국인 챔피언은 박세리(1998년), 김주연(2005년), 박인비(2008년), 지은희(2009년)를 포함,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특히 박세리를 롤 모델로 삼아 골프를 시작한 최나연은 14년 전 박세리가 '맨발 투혼'을 발휘하며 우승한 같은 코스에서 메이저 대회 첫 승을 이루며 정상에 올라 기쁨이 더욱 컸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열린 미국여자프로

골프(LPGA) 3개 메이저대회 중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유선영 우승)과 US여자오픈 등 2개 대회의 우승컵을 가져왔다. 작년에 유소연과 서희경(26·하이트)이 연장 접전을 펼친데 이어 올해 대회도 최나연, 양희영 한국 선수들끼리 우승 경쟁을 벌였다. 양희영과의 격차를 6타로 유지하며 최나연의 우승은 순탄할 것 같았지만 10번홀(파5)에서 큰 위기가 닥쳤다. 티샷이 왼쪽 숲 속 해저드로 날아가면서 공을 잃은 최나연은 1벌타를 받고 세 번째 샷을 날렸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최나연의 샷은 크게 흔들렸다. 러프를 전전하다 6타 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최나연은 2m차리

더보기 퍼트마저 놓쳐 이 홀에서 3타를 잃어 버렸다. 양희영과의 격차가 순식간에 2타로 좁혀졌고 쉽게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최나연은 11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1.5m에 불과 가볍게 버디를 넣은 데 이어 12번홀(파4)에서는 깊은 러프에서 빠져나와 5m 거리에서 천금 같은 퍼트를 성공시켰다. 13번홀(파3)에서는 워터 해저드로 날아가던 티샷이 경계석을 맞고 코스로 들어오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다. 18번홀(파4)에 오를 최나연은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샷이 짧아 보기를 했지만 우승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나연이 US 여자오픈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6번째 우승... US여자오픈 한국 독무대 ◎



1998 박세리



2005 김주연



2008 박인비



2009 지은희



2011 유소연

“꿈을 준 세리 언니 고마워요”

최나연 우승 인터뷰

말해줬다. -10번홀에서 트리플보기를 했는데, ▲티샷할 때 스윙이 좀 빨랐던 것 같다.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만 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 해저드로 가버렸다. -해저드 바로 앞에서 드롭하지 않고 왜 티 박스로 다시 돌아갔나. ▲사실 볼이 떨어진 지점을 놓고 경기위원과 이견이 있었다. 경기위원이 지정한 곳에서 드롭하자니 라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티박스에서 다시 쳤다. -12번홀에서도 두 번째 샷이 깊은 러프에 빠졌는데. ▲그때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려고 했는데 드롭 지점이 좋지 않았다. 그린 위에 올린다기보다는 러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다해 내려쳤다. 11번홀 버디와 12번홀 파 세이브가 우승하는 데 큰 힘이 됐다. 15번홀에서 버디를 잡았을 때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향후 일정. ▲시카고를 거쳐 10일 한국으로 간다. 잠시 쉬었다가 20일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사만사 사바사 레이디스 토너먼트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F1 영국 그랑프리 웨버 우승... 코리아 그랑프리 10월 12일 열려

F1 국제자동차경주 영국대회에서 마크 웨버(레드불)가 우승을 차지했다. 웨버는 지난 8일 영국 실버스톤 경주장(서킷)에서 열린 F1 9회전 영국대회에서 5.901km의 경주장 67바퀴를 1시간25분11초 288의 기록으로 주행,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선에서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에 뒤

져 2위를 기록했지만 결선에서 동료 4바퀴를 남겨두고 알론소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5월 모나코대회 이후 2개월 만에 2승을 챙겼다. 유럽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 알론소는 웨버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어렵게 2위에 그쳤다. 알론소는 7일 예선에서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 1위(폴로지션)를 거

머쥐었지만 결선에서는 타이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웨버에게 3초 차로 우승을 내줬다. 영국 홈팬들의 일방적 응원을 받았던 루이스 해밀턴과 젠슨 버튼(이상 맥라렌)은 8위와 10위에 머물렀다. 2년 만에 영국대회 우승을 차지한 웨버는 25점을 획득하며 총 116점으로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1위 알론소(129

점)와 격차를 좁혔다. 베네통은 100점으로 해밀턴(92점)을 밀어내고 종합 순위 3위에 올랐다. 팀별 순위는 레드불이 216점으로 1위를 유지했다. 페라리는 알론소 뿐만 아니라 마사가 간만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152점을 기록, 로터스와 맥라렌을 누르고 2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오는 20일부터는 독일 호켄하임 경주장에서는 독일대회가 열리며,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린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